

복지부 장관 “(의대 신설) 대통령 말씀대로 추진하면 돼”

조규홍 장관, 김영록 지사 ‘공모’ 설명에 사실상 동의 피력 의대 신설정원·출생수당·공보의 당직 등 의미있는 대화

전남도의 공모 방식을 통한 전남권 의대 신설 대학 추진 방안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김영록 전남 지사와 만나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김 지사로부터 ‘공모’ 방식을 통한 전남권 의대 설립 대학 추진 계획 설명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전남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정부 담화를 발표하는 등 큰 지원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대도약 전남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김 지사는 “정부 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용역을 준비 중이고 9-10월께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겠다”며 “5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 현안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의 ‘공모’를 통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에 대해 조 장관은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추진하면 된다”고 사실상 동의의사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전남도-시·군 318 출생수당과 관련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지출생 기조를 타파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전향적이고 조속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된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대통령실과 민생토론회 의제 협의할 것”

AI·복합쇼핑몰 교통대책·군공항 이전·미래차 산단 등 건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토론회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광주에서도 조민간 민생토론회가 열릴 전망이다.

특히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는 광주시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통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생토론회에 대비해 지역 이슈, 민생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대통령실에 요청해 놓은 상태

다.

윤 대통령이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방문할 경우 그 때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회신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광주시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복합쇼핑몰 관련 교통 대책, 군공항 이전, 미래차 산단 조성, 국

립 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지원을 바라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교통 대책 마련이 시급한 구간으로 꼽히는 더현대가 들어설 옛 방직공장터 부지와 신세계백화점 확장이 추진되는 광천동 등 일대를 연결할 도시철도 건립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미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요청해 놓은 만큼 연락이 오면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 이후에 그동안 못했던 민생토론회를 광주에서 해야 된다는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시기인 만큼 지금 하는 것이 더 시의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광주·전남 공동 민생토론회 개최 방안이 검토됐지만 광주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며 불리를 요구해 결국 ‘전남 민생토론회’만 열렸다.

5·18기록관 ‘5·18 44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연다

16-17일 ‘나-들의 오월...’ 주제...기록유산 등재 연구 성과 공유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9일 “오는 16-17일 이틀간 기록관에서 5·18민주화운동 44주년 및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3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들의 오월, 기록을 만나다’를 주

제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기념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1980년 오월 광주에 대한 개인의 경험, 시민 공동체, 집합적 오월의 기억들이 기록을 통해 어떻게 남겨지고 계승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2011년 5·18기

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관련 연구 성과도 공유한다.

5·18기록관은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미국의 평가, 5·18발생 배경 등에 대해 국내외 연구자들과 영화배우의 이야기로 국제 학술회의를 시작해 ▲제1회의의 구술기록 연구 ▲제2회의의 문서기록 연구 ▲제3회의의 세계기록유산 연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신대 5·18연구소,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4·16기억저장소와 4·16민주시민교육원, 대구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주4·3연구소 등 세계기록유산 소장 기관과 민주주의와 인권 기록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들이 참여한다.

전남연구원장 후보에 김영선 前광기술원장

임시이사회서 선정...인사청문회 요청키로

전남연구원 이사회(이하 이사회)는 9일 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제9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회 부회장을 원장 후보자로 최종 선정·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감사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심사 절차를 거쳐 추천한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경영 능력, 리더십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김 부회장을

최종 후보자로 만장일치 선정했다.

강진 출신인 김 후보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소장 겸 한국과학기술연합회 광주전남지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전남연구원 이사회는 최종 후보자의 능력·자격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전남도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道,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속 결정 건의

전남도는 9일 “이날 명확한 행정부 지사가 서울 소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방문,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명 부지사는 배택후 중앙여순사건위원회 여순사건지원단장과 ▲신속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명 부지사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인 대다수가 80-9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 중앙위 차원의 신속한 희생자·유족 심의 결정과 조사인력 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중앙위 차원의 조속한 여순사건 진상규명보고서 작성과 전남도 실무 조사 100% (7천465건) 달성을 위한 2025년 사실조사요원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4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 원우 모집

6월 5일 개강 | 특강 5회 · 2박3일 선도 관광지 견학

광주·전남지역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관광아카데미는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으로 이론 및 국내 관광 선도지역 견학 등 현장 학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광주매일신문이 개설한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에서 전문지식을 통해 관광 산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되십시오.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민간축제위원회, 행사 기획사, 관광에 관심있는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인원 50명 안팎
- 교육기간 2024년 6월 5일 개강, 6월 12일-14일 현장학습(여수·통영), 6월 20일 종강
- 지원자격 광주·전남 자치단체 관광 관련 공직자, 이벤트 기획사 임직원 및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는 시·도민
- 강의방식 전문가 특강 5회 / 현장학습(2박3일, 여수·통영)
- 수강료 250만원(현장학습비 포함)
- 모집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 문의 광주매일신문TV본부 062) 650-2024